



비룡소의 그림동화 295

# 엄마랑 나랑

코즈비 A. 카브레라 글 · 그림 | 이상희 옮김 | 40쪽 | 229x278mm | 값 13,500원 | 4세부터  
ISBN 978-89-491-1409-5 (74800) | ISBN 978-89-491-1000-4 (세트)

2021년 9월 6일 | (주)비룡소 펴냄 | 제품명 어린이용 각양장 도서

제조자명 RR Donnelley Asia Printing Solutions Limited | 제조국명 중국 | 사용연령 3세 이상

## 2021 칼데콧 명예상 · 코레타 스콧 킹 명예상 수상작 엄마와 딸이 보내는 다정하고 따뜻한 하루

“엄마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딸의 감정을 일상적인 하루에 아름답게 포착한 그림책.  
빛, 질감, 색채에 매 순간 사랑이 넘친다.” - 칼데콧 심사평

★★★

“세상의 모든 딸과 엄마들에게 바치는 그림책.” 《커커스 리뷰》

“부드러운 꿈처럼 녹여 낸 부모와 아이 간 사랑의 본질.” 《스콜라이브러리 저널》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와 위로를 주는 집에 대한 따뜻한 찬사.” 《북리스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우아한 이야기.” 《퍼블리셔스 위클리》

2021 칼데콧 명예상, 코레타 스콧 킹 명예상 수상작 『엄마랑 나랑』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엄마랑 나랑』은 딸과 엄마가 함께 보낸 비 오는 날의 하루를 아침부터 밤까지 담아낸 따뜻한 그림책이다. 칼데콧상 심사 위원단은 “엄마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딸의 감정을 일상적인 하루에 아름답게 포착한 그림책. 빛, 질감, 색채에 매 순간 사랑이 넘친다.”라고 평했다.

『엄마랑 나랑』을 쓰고 그린 코즈비 A. 카브레라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는 수제 봉제 인형 제작자이자 그림책 작가다. 책 속에서 재봉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서도 느껴지듯 이 책은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코즈비 A. 카브레라에게는 무척 소중한 여가던 컵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엄마가 아끼는 이 컵에 물을 담아 주는 일.”이라며 물을 뜨다 그만 컵을 깨뜨렸다고 한다. 그 순간 놀라움보다도 먼저 잔잔하게 내려앉던 기쁨을 소중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엄마랑 나랑』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삶에서부터 건져 올려, 따스한 시선으로 춤춤하게 그려 낸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 • 딸이었던 엄마, 엄마가 될 모든 딸들에게

주인공 소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 곁으로 다가가, 다른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 전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엄마 컵, 내 컵. 엄마 칫솔, 내 칫솔. 엄마 그릇, 내 그릇. 소녀는 엄마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다. 비 오는 거리로 산책을 나선 엄마와 소녀는 길의 이끼와 등지, 사람들을 구경하고 하늘 높이 노래도 부른다. 잠자리에 들며 소녀는 하루를 반추한다. 항상 함께였던 ‘엄마와 나’를.

“우린 하늘을 향해 커다랗게 노래해요.

하늘은 나무보다도 높고 높아요.

엄마가 말하길 노래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래요.”

엄마가 아닌 딸의 시선에서 하루를 바라보는 『엄마랑 나랑』은 모든 엄마와 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엄마와 같은 것을 쓰고 싶고, 엄마와 나를 비교하고 닮은 점을 찾는 모습이나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의 천진한 모습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소녀는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엄마의 말과 행동, 마음에 비추어 받아들인다. 나의 질문에 엄마가 건네는 진심 어린 대답, 엄마가 나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과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들이 아이의 하루를 만든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과 표현, 엄마와 딸의 다정한 대화는 책 전반을 따뜻한 기운으로 감싼다.

『엄마랑 나랑』에는 ‘나보다 먼저 엄마였던 우리 엄마 프리스카에게’라는 헌사가 적혀 있다. 딸에게는 엄마인 ‘나’도 한때는 내 엄마의 ‘딸’이었고, 그 엄마 또한 누군가의 딸이었다. 엄마와 딸이 같은 정서를 공유하며 하나의 크고 튼튼한 유대를 만들어 낸다. 엄마와 딸뿐 아니라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의 경험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서로라는 하나뿐인 특별한 관계를 그려 나가는 바탕이 되어 주는 그림책이다.

## • 아름다운 색채와 질감, 시적 은유가 돋보이는 서정적인 그림책

책을 펼치면, 면지에 알록달록한 여러 소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양말, 슬리퍼, 가방, 우산, 의자... 딸과 엄마가 공유하는 ‘엄마 것, 내 것’의 짝이 사랑스럽게 펼쳐져 있다. 이야기에 앞서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먼저 보여 준다.

또 페이지를 펼치면 밝고 다채로운 아크릴 물감의 색상과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구름 가득한 하늘과 분홍빛 석양으로 물드는 하늘, 높이 솟은 나무 그리고 불을 끄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캄캄한 어둠과 별빛까지 여러 색과 빛깔을 사용한 그림들은 매 장면마다 독자를 새로운 풍경으로 초대한다. 따뜻하게 끓인 오토밀이나 뜨거운 샤워 물줄기의 온기, 생활의 흔적이 묻어나는 부엌과 거실의 풍경, 아이와 엄마의 비슷하고도 다른 소품들은 시각적인 부분을 넘어 오감으로 아늑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짧은 글은 부드러운 그림과 만나 시적인 리듬을 형성한다. 줄곧 엄마와 아이가 마주보며 눈빛을 나누고, 닮은 얼굴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을 포착하던 『엄마랑 나랑』은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만으로 처리한다. 나란히 기대어 있는 엄마와 딸의 뒷모습에서 어느 장면에서보다도 견고한 유대가 느껴지며, 감정이 극대화된다. 작품의 완결성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021 칼데콧 명예상 수상작



비룡소의 그림동화 289

『행복한 고양이 아저씨』

아이린 래섬, 카림 삼시-바샤 글 · 시미즈 유코 그림 | 정희성 옮김

2021년 4월 23일 펴냄 | ISBN 978-89-491-1403-3

228x273mm | 40쪽 | 5세 이상 | 값 14,000원

전쟁 속에서 고양이들을 돌본 아름다운 실화

“사려 깊은 디테일과 다양한 관점으로 그려 낸 알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기쁨과 희망으로 이끈다.” - 칼데콧 심사평

• 저자 소개

**코즈비 A. 카브레라 글 · 그림**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받고 소니 뮤직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15년간 일했어요. 또한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는 수제 봉제 인형 제작자로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되었으며, 지금은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약하고 있지요. 쓰고 그린 책으로 『나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My Hair is a Garden*』이 있고, 뉴욕 브루클린에 살며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어요. Cozbi.com

**이상희 옮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어요. 시와 그림책을 쓰고 번역하며 ‘이상희의 그림책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림책 『이야기 귀신』, 『빙빙 돌아라』 등에 글을 썼고, 『지렁이 칼의 아주 특별한 질문』, 『날아라, 마일즈』, 『미피』 시리즈 등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편집부 그림책팀 팀장 정은정 02)515-2000(내선번호 322)/ aimat@bir.co.kr  
담당 편집 이재현 02)515-2000(내선번호 323)/ chae@bir.co.kr